

Daesoon Thought on Future Civiliz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Implications

Kwonsoo Na¹, Jaekeun Youn^{2*}

^{1,2}Daeji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the future civilization view of Daesoon Thought and to examine the religious educational implications contained therein. The founders of Korea's new religion have predicted changes in our society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y announced the opening of a new civilization with New post-cosmic creation, Reordering work to greatly open the three realms of the world, and the Great opening of spirit. The future due to COVID-19 is predicting the arrival of an unprecedented society that mankind has never experienced before. Although the economy and social structure and way of life are completely reorganized, it is clear that under a large-scale disaster, barriers between countries are meaningless, and coexistence and cooperation are key. Some argue that the end of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ideological foundation to solve it are in the East, claiming the modern value of Korean new ideology. This also suggests a moral indicator that Korean new religions can heal any number of evils in modern society if we change the wrong system of consciousness to those of us who are lost in the coordinates of our liv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uture civilization of Daesoon Thought is to be considered as a religious educational value contained in the argument by centered on Human Nobility(人尊) and the civilization of the Dao. This will contribute to various perspectives on understanding the view of future civilization of the new religions in Korea, and it will be an attempt to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w of future civilization of Daesoon Thought as an individual new religion.

Key words : Daesoon Thought, Future Civilization, Human Nobility, Religious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 **Corresponding to** Jaekeun Youn (Professor, Department of Religion and Culture, Daejin University)
E-mail : jkyoun@daej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대순사상의 미래문명관과 종교교육적 함의

나권수¹, 윤재근²

¹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²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

요 약

본 논문은 대순사상에 있어 미래문명관의 이론적 특징을 논구하고, 그 안에 담긴 종교교육적 함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신종교의 개창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예견한 바 있다. 이들은 다시개벽, 삼계개벽, 정신개벽 등으로 새로운 문명의 열림을 알렸다. 최근 COVID-19가 불러온 인류의 미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를 비롯한 사회 구조와 인간의 삶의 방식이 전면 개편되지만, 분명한 것은 대규모 재난 앞에서의 국가 간 장벽은 무의미하며 상생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혹자는 서구 문명의 종말과 이를 해결할 사상적 토대가 동양에 있다고 한국 신종교사상의 현대적 가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 신종교가 삶의 좌표를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그릇된 인식 체계를 바꾸면 현대사회의 해악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는 도덕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순사상의 미래문명을 인존과 도술문명을 중심으로 논증하여 그 안에 내재한 종교교육적 함의와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 신종교의 미래문명관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에 일조하는 한편, 개별 신종교로서 대순사상의 미래문명관이 담지하고 있는 특성을 부각하는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대순사상, 미래문명, 인존, 종교교육, 인성교육

I. 머리말

우리는 지금 일상이 비일상이 되고, 비일상이 일상이 되어버린 대전환의 시간을 살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미래의 도래에 코로나 이후 변화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각 분야의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 영역에서도 언택트(untact) 문화에 직면하여 선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간’이 총체적이고도 전면적으로 변화하는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의 도래는 종교의 변화 또한 소리 없이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드러난 종교의 민낯은 한국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Ko, 2020: 11-13). 지난 코로나19(COVID-19)의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종교시설로 분석됐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적 명제가 부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우리사회는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 종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차 확인된 것이다. 이제 코로나19는 팬데믹(pandemic)을 지나 엔데믹(endemic)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욱이 종교는 공공재라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이다(Yeum, 2017: 11-16). 코로나로 인해 도래한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종교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종교계의 자성과 자정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 신종교사상으로서 대순사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신종교의 개창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변화를 예견한 바 있다. 이들은 다시개벽, 삼계개벽, 정신개벽 등으로 새로운 문명의 열림을 알렸다. 수운(1824~1864)은 종전과는 다른 창조적이며 자생적 개벽사상을 정립하였고, 증산(1871~1909)은 개벽의 주체와 범주를 재해석하여 개벽사상을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종교운동으로 정착시켰다. 또한, 소태산(1891~1943)은 근대적 흐름과 제반 문제의식을 통찰하여 정신개벽이라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개벽사상을 승화하였다(Na, 2011: 247-262). 세계가 한 울타리처럼 묶이면서 갈등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혹자는 서구 문명의 종말과 이를 해결할 사상적 토대가 동양에 있다고 한국 신종교사상의 현대적 가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 신종교가 삶의 좌표를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그릇된 의식체계를 바꾸면 현대사회의 해악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는 도덕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들은 장차 유례없는 병겁이 온 누리에 참상을 입힐 것이라고 예시한 바 있다(Kim, 1977: 16-21). 하지만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관망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의 돌파구 없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신문명의 도래와 건설을 역설하였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어두운 음(陰)시대가 지나가고 밝은 양(陽)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 개벽의 주체는 한국이 되며, 한국이 세계의 도덕적, 정치적, 또는 문명적 중심지가 되리라는 새시대의

기대와 희망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한국 신종교는 일제강점기에 태동하여 이상적 사회의 전형을 그리며 현 시국을 타개할 사회적 동력으로 기능해 온 것이다(Yoon, 1991: 287-288).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질서가 전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신종교사상은 특정 종교사상을 넘어 역사적 산물로서 충분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순사상의 미래문명관에 주목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순사상의 미래문명관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 및 이상사회론과 연관하여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한국 신종교가 외적 충격과 내적 모순에서 비롯된 종교적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진행되었다.¹⁾ 이는 종교와 사회의 유기적 관련 하에서 신종교를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상사회론을 사회·역사적 산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이 부조리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였고, 민중의 대망의식을 결집하는 현실 극복의 가교로서 역할 하였음을 조명하였다는데 그 학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시대적 요인과 신종교 발생이 직접적이고 유일한 인과라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Kang, 1987: 216-217). 그런데도 종교와 사회변동이라는 입장에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일면 사회학적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사회적 정황이 지나치게 강조됨에 따라 한국 신종교의 개별적 특색이 간과되는가 하면, 개벽사상이 단지 시대의 지엽적 부산물로 국한될 여지를 지니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순사상의 미래문명관은 종교적 이상사회와 그 특징을 주로 다루고 있어 교학적 논증을 위한 논설에 국한되어 있다.²⁾ 또한, 미래문명으로서 증산이 예시한 ‘도술문명’에 관한 정치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벽과 이상사회가 아닌 도술문명으로 일컬어지는 미래문명관을 중심으로 그 안에 담지한 종교교육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교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종교교육이 유효하다는 것은 종교계나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Ryu, 2013: 24).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의 종교적 편견과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 대표적인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황선명(1987), 근세한국종교문화와 후천개벽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노길명(1989), 한국 신흥종교운동의 사상적 특성, 종교·신학연구 2; 유병덕(1996), 한국 신종교의 실상과 그 연구 현황, 한국종교사연구 5; 나권수(2011),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에 관한 고찰, 신종교연구 24; 김홍철(2012), 근·현대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 고찰, 한국종교 35; 박광수(2012),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 소고, 한국종교 35; 윤승용(2012), 한국의 근대 신종교, 근대적 종교로서의 정착과 그 한계: 개벽사상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2; 허남진(2018), 한국 개벽종교와 토착적 근대, 종교문화연구 30.

2) 관련 연구로는 윤기봉(2002), 궁극적 가치추구와 지상천국의미 비교, 대순사상논총 15(이하 같은 권호임); 윤재근,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세계에 대한 해석과 인식; 이경원, 대순진리의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에 관한 연구; 고남식, 구천 상제의 강세신화와 지상천국; 김재천, 지상천국건설에 나타난 세계관 연구; 주현철, 세계개벽의 사상적 특성과 의의; 이재호, 인류의 이상세계와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의 의미 등이 있다.

이는 일부 종교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체계의 절대화와 배타적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위로와 치유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 모임을 자제해야 할 시점에 일부 종교는 신의 이름으로 대규모 종교행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 신자들 사이에서 횡행함으로써 오히려 감염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불평등 다음으로 종교 갈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Youhap News, 2020.11.5.). 만약 자종교의 교리만을 고집하여 코로나 시대에 무절제한 교세 확장에만 주력한다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마찰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종교가 갈등이 아닌 평화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지식과 함께 공감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종교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이 필요하다(Park, 1997: 14). 하지만, 종교에 대한 광범위한 문맹(religious illiteracy)이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중립적 입장의 종교에 관한 교육은 축소되고 있다(Na & Youn, 2019: 136-137). 종교에 대한 무지는 개인의 지적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이미 목도하고 있다. 종교에 관한 몰이해는 종교에 대한 편견을 낳으며, 이 편견은 다시 종교에 대한 편향과 차별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침으로써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Chung, 2002: 270).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주도되었던 종교사회학적 담론을 보완하고 종교교육적 함의를 논구함으로써 한국 신종교의 미래 문명관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는 나아가 개별 신종교사상으로서 대순사상의 미래문명관이 담지하고 있는 특성을 조명하는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II. 대순사상의 세계인식

증산(甞山 姜一淳, 1871~1909)이 그의 길지 않은 한 생을 마감하고 화천(化天)한지 한 세기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리 멀리 않은 간극으로 인해 아직까지 우리의 기억 한켠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산 사후의 조속한 경전화 작업으로 증산의 언행을 기록한 다양한 경전이 전하여 온다. 여기서 특기한 점은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을 비롯한 제경전들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이 한결같이 증산의 신이한 권능에 대해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³⁾

3) 이 논문의 논의는 『전경(典經)』을 기반으로 한다. 『전경』(대순진리회 교무부,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은 증산의 언행을 중도들의 기억이나 기록들로부터 모아 편성한 종단 대순진리회의 경전이다. 여기에는 정산의 기록(교운 2장)과 후세에 발견된 『병세문(病勢文)』, 증산이 남긴 친필의 『현무경(玄武經)』이 들어 있으며, 총 7개 목차에 17개 장(행록 5장, 공사 3장, 교운 2장, 교법 3장, 원지 2장, 제생,

기록이라는 것은 실제 인물과 사건을 객관적 사실성에 근거하여 기술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작가의 성향과 의도가 가미되게 된다. 따라서 증산의 권능 행사에 대한 경전의 기록을 사실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은유·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지는 역사적 인물로서 실재하였던 증산에 대한 이해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능화(李能化, 1869~1943)는 『조선도교사』에서 증산이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시작한 신축(1901)년부터 천지공사를 마치고 화천한 기유(1909)년까지 9년간의 이적을 민중에 대한 맹신자들의 우롱으로 폄하하였다(Lee, 1977: 338-339).

반면 증산을 추종하였던 중도들과 증산을 신봉하는 증산교단에서는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를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물샐 틈 없는 도수를 짜 놓는 실제적인 행위로 신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지공사 이후의 인류사는 천지공사로 인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후천선경의 새 기틀이 열리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 천지공사에 대한 확신으로 증산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증산이 바로 삼계대권(三界大權)의 소유주이며 구천의 상제라는 신앙 고백과 추앙으로 연결된다(예시 9). 양단의 상반된 이해를 이 글에서 간명하게 절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증산의 세계인식과 미래관을 『전경』의 기록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 근대 신종교의 개창자들 가운데 증산의 행록(行錄)에 유독 신이한 권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증산의 세계인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천지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일면 이해할 수 있다. 증산은 현실 문제를 당대의 지엽적 문제점에 국한하여 살피지 않고 인류사를 종관하였으며, 천하개병(天下皆病)의 동인을 우주적 범주로 외연을 확장하여 이해하였다. 요컨대 현실 문제의 근인(近因)을 상극(相克)으로, 원인(遠因)을 원(冤)으로 인지한 것이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 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공사 1-3).

위 인용문에서 증산은 선천 운행의 이면 원리가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천지의 상도가 어그러져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참혹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증산과 동시대에 활약한 최수운이 각자위심(各自爲心)으로, 홍암이 망본배원(忘本背源)으로, 소태산이 물질개벽 등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당대의 시대적 병폐를 초자연적 세계로 투사하여 궁극적 해결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예시), 334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산교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전에 관한 내용은 윤재근(2014), 한국 신종교 경전의 문학적 요소, 문학과 종교 19(3)을 참고할 것. 한편, 이하 『전경』의 인용은 ‘편·장·절’의 일부만을 간략히 표기한다. 예를 들어 ‘『전경』, 행록 1장 1절’을 ‘행록 1-1’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증산이 원한이라는 인간의 일상적 감정에 주시하고, 나아가 그것을 다시 상극이라는 자연 원리와 연맥한 것에서 그의 독특한 세계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Na, 2013: 436-438). 이를테면 첫째, 증산은 인류 역사를 곧 원의 역사로 이해했다(Youn, 2009: 68). 그는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욕망을 지닌 존재로서 이를 성취하지 못할 때는 병적으로 발산될 수 있음을 갈파한 것이다(교법 3-24). 둘째, 증산은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 관계 속에 있다고 파악했다(행록 3-44). 그는 인간의 마음 작용이 천지의 운행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인간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의 고리가 양산된다고 통찰한 것이다(공사 3-29). 셋째, 증산은 원울의 해소가 본질적이고도 구조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신념을 견지했다. 그는 지엽적 문제보다는 외부 환경과 기틀의 개정으로써 인사는 저절로 이룩될 것으로 보았다(공사 3-4).

천지공사는 이러한 증산의 세계인식을 근간으로 진행된 일련의 종교운동이다. 따라서 천지공사를 관류하는 요체는 선천의 하늘과 땅의 운행질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후천의 도수(度數)를 재조정하는 천지인 삼계(三界)의 개벽공사라고 할 수 있다. 증산은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를 풀어 상도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결원을 해원으로 상극을 상생으로 전환하는 자연 질서의 개정을 통해 지상천국 건설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증산은 자신을 구천의 상제이자 개벽의 주재자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를 추종하는 이들에게 개벽의 실효성을 주지시켰다.

여기에서 증산은 천지공사에 능동적 주체로서 인간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천지공사에 최고신 상제의 권한이 전면 부각함에 따라 인간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피동적 존재로 정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증산은 천지공사에 종도들을 참관하게 하였으며, 독단이 아닌 주관자의 입장에서 공의(公議)를 통해 도수를 확정하였다(교운 1-8). 무엇보다 일의 성공 여하가 하늘이 아닌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하여 이들의 자의식을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커다란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였다(교법 3-47). 즉, 증산은 천지공사에 인간을 동참하게 하여 공사의 신뢰감과 후천선경 도래의 희망을 가져다주었고, 이들의 일상적인 삶을 종교적 삶으로 전향하게 하여 종교운동의 파급력을 발휘하게 한 것이다(Kim, 2001: 71). ‘믿는 것’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승화하여 주어진 세계로의 진입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를 지향한다(교운 2-41 布諭文)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오늘날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종교 활동은,⁴⁾ 증산의 유지를 받드는 공사의 일환이라는 신념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역동적인 종교운동으로 현창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증산이 후천의 안락한 삶과 무한한 기쁨을 기약했다고 하여 모든 이들이 후천에 참여하여 그 즐거움을 향유하지는 않을 것임을 단언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오직 참된 자만이 후천에 동참하여 복락을 영위할 수 있음을 천명하여 부단한 자기 수양과 능동적

4) 대순진리회는 포덕·교화·수도를 중단 기본사업으로,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을 중단 3대 중요사업으로 삼아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 시행하고 있다.

선행을 촉구하였다(예시 17). 예컨대 증산은 후천의 복록과 수명이 성경신(誠敬信)에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인간의 자기수양을 진작하고 있는 것이다(대순지침, 2012: 38). 이는 달리 말하면 새로운 종교적 이상사회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함양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대순사상의 미래문명과 인성 함양의 상관성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I. 대순사상의 미래문명과 인성

한국 신종교 개창자들은 자신의 종교체험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사상체계를 구현하였다(Na, 2013: 413-420). 하지만, 신종교사상이 오로지 개창자의 종교체험만으로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종교의 교리체계에는 전통적으로 공유되어 오던 일련의 가치들이 확인된다. 이는 신종교가 기성종교의 사회적 폐단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갔지만, 모든 사상체계는 시대와 전통 간의 일정한 영향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이 흙은 개별 종교 전통은 고정된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복합으로 이해해야 하며, 완전히 새로운 종교적 신념체계와 순수한 종교 전통은 없다고 보았다(Yoon, 1991: 9-11).

대체로 천도교는 유교적, 증산교는 도교적, 원불교는 불교에 주체를 두고 있다고 그 성격을 규명한다. 물론 한국 신종교의 성격 구분에는 이견이 있으며,⁵⁾ 기성의 종교사상과 관계없는 독창성이 주장되기도 한다(Kim, 1994: 293). 그럼에도 증산의 사상체계에 도교적 요소가 비중 있게 사용되고 있음이 중론이며, 특히 그가 예견한 미래문명의 한 양상이 곧 도술문명사회이다.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 대금산(天下之大金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 금불(六丈金佛)이 화위 전녀(化爲全女)이라
만국 활계 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 명월 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 개화 삼천국(文明開花三千國) 도술 운통 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

위 내용은 증산이 금산사에서 종도들에게 외워준 구절(예시 14)로서 증산의 출현과 그가 전망한 미래문명의 단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내용은 그 함의를 명확히 해독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에서 증산은 만국의 활로가 우리나라에 있으며 장차 온 누리에 문명이 개화

5) 대순사상과 기성종교의 상관성 및 관련 연구사는 윤재근(2010), 한국 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종교교육학연구 33; 윤재근(2011), 증산사상의 불교 수용과 해석, 신종교연구 23; 윤재근(2011), 증산의 유교 비판과 수용, 종교교육학연구 35 등을 참조할 것.

하고 ‘도술’이 구만리에까지 통하여 전 인류가 물질적 풍요와 혜택을 구가하는 사회가 전개된다고 주장한다.

증산이 예시한 미래문명의 단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산의 도술관에 주목해야 한다. 도술과 관련해 증산이 남긴 언설이 다수 존재한다. 증산의 도술 행사는 물을 손으로 저어 술로 바꾸는 간단한 도술에서부터 치병, 점복, 예시, 둔갑, 호풍환우(呼風喚雨), 신명 호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도교 전통에서 도술은 비상(飛翔), 은형(隱形), 변형(變形), 분신(分身), 통명(通冥), 사귀(使鬼), 구마(驅魔), 치병 등의 인간이 상상으로 미칠 수 있는 범위의 것은 모두 취급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이다(Kim, 1979: 64-69). 그런데 증산은 단지 종래의 도술 사용 범주를 넘어 그의 도술 능력이 천지의 운행을 조정하는 경지에까지 발휘되고 있음을 밝힌다. 기상을 통제하거나(권지 1-22; 제생 18) 번개를 다루는(권지 1-23) 등의 면모를 비롯하여 태양을 멈추는 권능(권지 1-27)까지 보인다. 이는 증산이 자신이 천지 운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동시에 증산을 투사한 인간이 천지의 중심이라는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증산은 다양한 도술을 사용하였고, 또한 제자들에게 태좌법이나 주문수련 등의 도교적 수련 방법을 채용하여 가르침으로써 오늘날의 증산교단 수련법에 면면히 전승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Kim, 1994: 335-353). 따라서 증산이 견지하고 있는 양가적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대순 사상의 미래문명관에 다가가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용력술을 배우지 말지어다. 기차와 운선으로 백만 근을 운반하리라. 축지술을 배우지 말라. 운거(雲車)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 리 길을 경각에 왕래하리라(예시 75).

위 인용문에서 증산은 용력술, 축지술과 같은 도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도술은 상상과 소망을 이뤄주는 수단이자 통로였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인간과 자연의 신비를 풀어내고 과거 도술로 여겨졌던 것들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제 과학은 상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매체가 되었다. 이를테면 도술이 지녔던 가치와 의미를 오늘날 과학 기술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Na & Kim, 2017: 47-48).

증산이 도술의 무용성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가 도술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증산은 자신의 종교적 이상을 도가적 토대 위에서 전개하여 대중들에게 실증하려고 하였다(교운 1-40). 또한, 종교적 이상과 실천적 수행을 겸비 정진하는 종교적 삶을 지향하여 인존으로 대변되는 전인적 인간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도통’을 획득한 존재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만사를 임의로 행하는 도술적 능력을 발휘하여(교운 1-34) 불로불사하고 비상천을 임의대로 하며, 과거 현재 미래와十方세계에 통달하는 초인적 존재로 보았다(예시 81).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증산은 도술 습득과 용사보다는 마음

을 닦는 수심·정심·일심 등의 실천적 과제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일례를 증산의 아우 강영학(姜永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영학은 증산의 아우로 어려서부터 증산에게 한학(漢學)을 수학하였다. 하지만, 그는 한학보다는 오히려 도술을 열망하여 술서(術書)에 탐닉하였다. 이는 유년시기부터 접해온 증산의 기행과 이적을 체험하며 키워온 도술에 대한 동경 때문으로 보인다. 도술에 관한 영학의 열망은 도술을 통하게 해달라는 증산에 대한 발원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해 증산은 신력에 통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일러준다.

상제께서 아우 영학(永學)에게 부채 한 개에 학을 그려 주시고 “집에 가서 부치되 너는 칠성경(七星經)의 무곡(武曲) 파군(破軍)까지 읽고 또 대학(大學)을 읽으라. 그러면 도에 통하리라”고 이르셨도다(권지 1-15).

위의 구절에서 증산은 도에 통할 수 있는 방편으로 『칠성경』과 『대학』을 언급한다. 『칠성경』에서는 북두칠성신(北斗七星神)이 인간의 선악을 심판하여 복록과 재앙을 내리는 권능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수지(受持) 독송하면 재앙을 면하고 복록을 누리며, 나아가 신선의 경지에 이르게 됨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Kim, 1992: 359-361). 『칠성경』의 최종 목표가 불로불사하는 신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증산 또한 자신의 일을 장생술을 전한 여동빈 설화(예시 61)에 빗대어 불로불사의 구현임을 적시한 것을 본다면, 도에 통하는 방편으로 『칠성경』을 언급한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도에 통할 수 있는 방편에 『대학』이 언급되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대학』은 그 문장이 평이하면서도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서 유교의 요체를 이해하는 필수적인 책이다. 격물치지(格物致知)에서 시작하여 수신제가(修身齊家)를 거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에서 끝나는 유학의 목적과 정무(政務)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다. 유교의 대표적 경전 중에 하나인 『대학』이 도에 통하여 신력을 얻는 방편으로 채용된 것은 단순한 인용의 차원으로 간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증산은 『대학』을 이 사례 외에도 교화의 수단으로 수차례 비중 있게 인용하고 있는데, 종도들의 지혜를 깊게 하기 위해 『대학』의 경(經)을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증산은 『대학』의 경에 대운이 있으며(교운 1-55; 교운 1-56), 이를 다독하면 활연 관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교법 2-26). 더욱이 증산이 직접 병자를 고치지 않고 종도들을 통해 고친 몇 안 되는 사례에서도 『대학』이 치병의 메커니즘으로 사용되고 있다(제생 14; 제생 32). 따라서 『대학』에 관한 일련의 강조와 함께 도술 획득의 방편에 『대학』이 언급된 것은, 『대학』의 내용이 도술 습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산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대한 증산의 강조는 도교에서 신선이 되기 위한 필요 요소로 언급되는 선행(善行) 강조와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덕행을 쌓

고 선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에 대해 갈홍(葛洪, 283~343)의 『포박자(抱朴子)』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장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善)을 쌓고 공을 세우며 사물에 대해 자비심을 갖고 자신을 용서하듯이 남을 용서하고 어진 마음이 곤충에게까지 미쳐야 한다. 남의 행운을 즐거워하고 남의 고통을 가없이 여기며 남의 위급함을 돕고 남의 가난을 구제해야 한다. 손으로 산 것을 해치지 않고 입으로는 재앙이 될 일을 권하지 않아야 한다. 남의 이득을 보면 자신이 얻은 것처럼 여기고 남의 손실을 보면 자기가 잃은 것처럼 여겨야 한다. 거만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시새워하지 않으며 아첨하거나 몰래 중상모략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러야 덕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하늘에서 복을 받아 하는 일이 꼭 이루어져 신선을 추구해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포박자·내편』 권6 「미지(微旨)」).

위의 인용에서 갈홍은 선행을 행하는 유덕자(有德者)만이 신선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격도야의 수행이 병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도교의 선행 강조 전통과 맞물려 증산 또한 종도들의 인격도야를 위해 수심(修心)과 정심(正心)에 대해 부단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산이 『대학』의 팔조목 가운데 ‘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공사 3-39)’라고 하여 ‘정심’에서부터 인용하여 기록한 것은 ‘정심’에 대한 강조 용법일 수도 있다.

정리하면 증산이 도에 통할 수 있는 방편에 『칠성경』과 함께 『대학』을 언급한 것은, 도술 획득에 앞서 정심을 통한 인격 완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피력한 것이다. 그런데 영학은 증산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끝내 술서에 몰두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다. 도술을 탐닉하는 사례는 이외에도 다수가 있다. 예를 들면, 증산의 도력을 뺏고자 한 정남기(권지 1-15), 차력약을 먹고자 한 김병옥(교법 3-14), 천강과 도통을 받고자 한 박공우(교운 1-33; 교운 1-58) 등이다.

도술 습득에 매달리는 이러한 모습은 관점을 달리하면 일제강점기라는 돌파구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표출된 일종의 열망이었다. 당시의 기층민중들은 자신들의 미약함과 힘의 한계를 절감하였다. 만약 그들에게 도술과 같은 초인간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국난을 바로잡고 사회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개선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비현실적이고 허망한 도술에 대한 의구심, 게다가 도술을 부리기 위해 산수간(山水間)에서 소요되는 고행은, 범인들이 쉽게 근접하기에는 어려운 괴리감만을 낳았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도술을 획득하기보다는 초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 당시의 상황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표출된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국난을 극복하고 그들의 울분을 통쾌하게 해소해 주는 민중의 영웅이 등장하기를 대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증산의 등장과 그의 도술 행사는, 증산을 민중의 영웅이나 신인으로 추앙하기에 충분하였다.

민중과 더불어 그들의 대변인임을 자처하였던 증산이, 민중의 이러한 소망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종도들의 도술 습득을 완곡히 금지한 것은 탐욕으로 발산되는 도술

의 해악 때문이었다. 증산은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린다(교법 3-24).”고 하여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누차 우려했다. 그는 마음이 사사로운 욕구에 가려지면 인간은 간악한 행동을 일삼게 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며, 나아가 천지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결과를 낳게 됨을 목도했었다(행록 3-2; 권지 1-15; 공사 1-33). 이에 증산은 도술을 배우기를 간곡히 원하는 종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

너희들이 항상 도술을 배우기를 원하니 지금 가르쳐 주어도 그것은 바위에 물주기와 같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니라. 필요할 때가 되면 열어주리니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힘쓸지니라(교법 2-12).

위 인용문을 분석해 보면 증산은 ‘지금’이 아닌 ‘필요할 때’가 되면 도술을 ‘열어주겠다’는 확언에 그치고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힘쓸 것’을 당부한다. 이를 앞서 살펴본 대순사상의 세계 인식과 조응하여 설명하면, ‘지금’은 선천 상극시대를, ‘필요할 때’는 후천 상생시대를 의미한다. 증산의 관점에서는 상극이 깃든 마음에서 발현되는 도술은 포원과 적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상사회 건설에까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증산은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공사 3-29).”고 보았고, 이를 ‘악의 씨(교법 3-15)’라고 하여 원울의 재발을 경계했다. 따라서 도술의 행사가 급선무가 아닌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힘쓰라’는 인성 함양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적 측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대순사상의 미래문명관에 근거한 종교교육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인존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적 함의

증산은 자신이 추구한 ‘도술’과 종도들이 회구한 것을 ‘술수’로 명명하여 구분하였다(예시 76). 말하자면 증산이 지향하는 도술은 제생의세(濟生醫世)라는 성인의 도이고, 종도들이 발원한 것은 재민혁세(災民革世)하는 웅패의 술이라고 가늠한 것이다(교운 1-16). 증산이 전망한 미래문명의 또 다른 양상은 ‘인존시대’이다. 앞으로는 기존 질서와 다른 새 질서체계가 열리게 되는데 새롭게 열린 후천은, 우주의 운영을 인간이 담당하는 구조가 된다. 요컨대 천지의 운행이 신에서 인간으로 전이되며, 증산에게 능력을 부여받은 ‘완성된 인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증산은 도술에 대한 갈망과 집착을 지양하고 인격도야에 매진하여 후천선경에 동참할 원만한 인격자가 되어야 함을 교시한 것이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교법 2-56).

상제께서 하루는 김 형렬에게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 주어 신명의 회산과 청령(聽令)을 참관케 하셨도다(예시 17).

인존은 인간을 우주적 차원에서 이해한 것으로 천지인 삼계의 전체구조 속에서 인간이 자기 완성을 통하여 삼계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인간상이다(Youn, 2001: 62). 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신보다 인간을 더 높이 좌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인간존중, 인간중심 등의 개념을 넘어 인간이 자기완성을 통하여 우주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교육을 통한 인성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며(교법 3-4), 이를 우주적 관점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전인적 인간 완성의 구현을 통해 무한한 가치실현의 주체로서 인간의 역할을 부각한 것이다(Na & Youn, 2015: 81).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식변화의 명제와 의식구조의 개혁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후천의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해석되는 인존의 관념은 내재적 본래 심성을 회복하는 인간상으로 대순사상에 있어서 교육 이념을 설정하는 기저가 된다(Youn, 2001: 65).

인간이 인존이라는 초월적 존재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마음에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신과의 교통을 통해 신의 조화를 창출하는 본체로 규정한다(공사 3-41). 따라서 인간은 천지 만물 가운데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가 된다(예시 21). 이와 관련해 증산은 인간의 마음이 곧 ‘천지의 중앙’(교운 1-66)이라고 표현했으며, 천지의 중용(從容)과 분란(紛亂)이 모두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 자연현상까지도 마음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행록 3-44). 이를테면 마음은 인간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외부 환경까지도 그 작용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증산은 이러한 마음의 신령함을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함을 환기시킨다(교운 2-41).⁶⁾ 이처럼 인간의 마음을 단순한 의식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상계를 주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순사상 마음관의 고유한 특징이다(Na, 2017: 35).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일신(一身)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 이용”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로 규명함으로써 수양의 주체로서 대변한다(대순진리회요람, 2016: 16).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을 양심과 사심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고,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6) 공사 3-41, “運 靈臺四海泊 得體 得化 得明”

예시 21, “天地無日月空殼 日月無知人虛影”

교운 1-66,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

교운 2-41, “吾之所求有無量至寶至寶即吾之心靈也心靈通則鬼神可與酬酢萬物可與俱序 …”

행록 3-44,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인성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기에 전념할 것을 강조한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순사상은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할 것을 종교적 가르침으로 명시하고 있다(대순진리회요람, 2016: 18-19).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종교교육과 종교수행은 마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이상적 가치인 인존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을 요체로 하고 있다. 그 일면을 살펴보면, 대순진리회는 1984년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4년제 종합대학교와 6개의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인간성의 소멸과 정신문화의 쇠퇴라는 인류 사회의 공통된 고뇌를 참된 인간교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종단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대순지침, 2010: 97-99). 이에 산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참된 인간교육에 힘쓰라(대순지침, 2010: 102).”는 유지와 “성·경·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인격 형성에 이바지하라.”는 훈시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에 부합될 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주요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Na & Youn, 2015: 81-87). 한편, 종단에서는 ‘기도, 수련, 공부’, ‘수강, 연수’ 등의 종교수행을 통해 종교적 인격의 성숙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수행은 단순히 일신의 복을 기원하기보다는 대순진리회에서 지향하는 궁극적 이상세계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일종의 종교의례라고 인식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Na & Youn, 2015: 93-95).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윤리도덕적 가치는 도외시되고, 물질만능주의가 점차 강조됨에 따라 인간성 상실이 그 심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산은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여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다(교운 1-9).”라고 하여, 지나친 물질 숭배가 결국은 인간의 교만을 조장해 인류를 진멸지경에 몰아넣었다고 역설한 바 있다. 더욱이 그는 현하의 학교 교육이 관리 복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였다고 비판하며, 인격완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직설하였다(교운 1-17). 또한, 어릴 때부터 시비로써 성품을 기르는 당시의 교육현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교법 2-25). 본래 교육이란 온화한 성품과 올바른 인성으로 도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가 화평해지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시비를 가늠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의 정신과 인품을 길들이고 있다. 이처럼 증산은 교육의 기능 상실과 이탈로 인해 사회적 불균형이 조장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오늘날의 교육풍토에도 적용된다. 산업사회의 물질 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교육은, 더 이상 인격완성을 위한 조력자가 아닌 단편 지식의 축적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가하다. 다시 말해, 전인교육이 아닌 취직을 위한 등용문이 되어버린

것이다(Na & Kim, 2017: 49-51).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추구하는 바의 교육 이념에 얼마만큼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묻는 문제이고, 그 가능성의 여부 내지는 무엇을 통해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인적 인성교육을 그 어느 분야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실천적으로 실행하는 교육이 종교교육이다. 종교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지향하고,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이념과 방법이 정립되어 있다(Na & Youn, 2019: 137). 종교의 교육적 가치는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다. 인존이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실현이라는 초월적 면모를 전제하고 궁극의 삶을 지향하지만, 인존의 실현은 일상의 삶 속에서 동시통합적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다. 즉, 개개인이 지니는 존엄성에 대한 자각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해 완성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존사상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해보면, 학생을 단순한 교육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학생 개개인이 지니는 존엄적 가치를 존중하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져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리라고 기대한다.

V. 맺음말

14세기 중세유럽의 봉건제도에 종지부를 찍은 흑사병, 17세기 대항해 시대를 연 천연두,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평화를 가져온 스페인 독감 등 인류사에서 팬데믹(pandemic)은 거의 예외 없이 문명의 전환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무오(戊午)년 독감이라고 불렸던 스페인 독감은 일제강점기에 유입되어 일제의 무단통치와 모진 수탈에 고통받고 있던 기층민중의 생활고를 가중하고 불안 의식을 증대하여 3.1 독립운동을 촉발한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조선 후기 사회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지속해서 창궐하고 있었다(Kim, 1977: 2-4).

한국 신종교의 개창자들은 이와 같은 질병이나 이해할 수 없는 병겁으로부터 세상을 구제하려 했던 공통된 노력이 발견된다. 당시 전염병에 대한 불가역적인 한계 상황과 민중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수운은 ‘괴질운수’라고 하여 전염병을 인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천지도수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간주했으며, 소태산은 질병을 문명사적 맥락으로 접근해 ‘병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정신개혁을 주창하였다. 반면, 증산은 이들보다 더욱 광범위하고도 독특한 병관을 견지했다. 그는 몸과 마음의 생물학적 질병에서 사회 병리현상, 나아가 우주 삼라만상이 상도를 잃어 총체적으로 병들었다고 진단하였다.⁷⁾ 이에 대한 처방으로 증산은 동곡 약방을 차려 수많은 이들을 기적과 이행으로 치료하거나 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의 병을 대신

7) 행록 5-38,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 大仁大義無病”

않아주기도 하였다(제생 23). 또한, 사회의 불평등, 불합리, 부조리 등을 치유하기 위한 종교적 행보를 경주해 나갔으며, 더욱이 천지공사로써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증산은 장차 유례없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힐 것으로 예견했다(공사 1-36).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바로 죽게 된다고 하여 ‘급살병’으로도 표현되는 이 괴병에 대해 증산은, 어떠한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으로도 구해낼 방법이 없다고 애석해 하였다(예시 41; 예시 43). 즉, 선천과 후천의 문명사적 전환기에 팬데믹과 같은 대변역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증산은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관망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불확실성의 병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의통(醫統)을 제시한다. 이 의통은 영통과 도통의 다름 아니다(대순진리회요람, 2016: 9). 이를테면 삼계를 투명하여 삼라만상에 곡진히 이해하고[靈通], 만사를 임의로 행하는 무소불능한 능력[道通]인 것이다. 의통은 이와 동일한 것으로 치병 능력을 강조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증산은 이러한 의통의 상장을 통하여 인간의 실존적 자각과 현실 타개의 의지를 강조한다. 또한, 신문명의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가 재조가 월등한 상등국이 될 것으로 확인(공사 2-25)하여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격려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증산이 초인적 인간의 출현에 앞서 전인적 인간을 위한 교육에 방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종교교육은 양심을 회복하고 원만한 인격자를 양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을 그 요체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가 전면 재편되고 있다. 증산을 비롯한 한국 신종교 개창자들이 전망한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지나친 민족주의 혹은 편협한 국수주의로 오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 속에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의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에서 증산이 발견한 한민족의 저력과 문화적 가치가 발현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래할 미래는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세계경제를 비롯한 사회 구조와 삶의 방식이 전면 개편되지만, 분명한 것은 대규모 재난 앞에서는 국가 간 장벽은 무의미하고 연대와 협력이 주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증산이 주창한 해원과 상생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인간이 천지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인존사상이 뉴노멀 시대를 맞아 우리사회의 진지한 성찰과 고민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References

-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 Jinrihoe (2010). *The Canonical Scripture*, Yeoju: Daesoon Jinrihoe Press.
-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2).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 Jinrihoe (2012). *The Guiding Compass of Daesoon*, Yeoju: Daesoon Jinrihoe Press.
- 대순진리회 (2016).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Daesoon Jinrihoe (2016). *Essentials of Daesoon Jinrihoe*, Yeoju: Daesoon Jinrihoe Press.
- 김성민 (2001). 종교체험. 서울: 동명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S. M. (2001). *Religious Experience*. Seoul: Dongmyeongsa.
- 김현룡 (1979). 신선과 국문학, 서울: 평민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H. R. (1979). *Taoist Immortal and Korean Literature*. Seoul: Pyeongminsa.
- 윤이흠 (1991). 한국종교연구 권1. 서울: 집문당.
(Translated in English) Yoon, Y. H. (1991). *Korean Religion Study Vol.1*. Seoul: Jibmundang.
- 이능화, 이종은 역 (1977). 조선도교사. 서울: 보성문화사.
(Translated in English) Lee, N. H. trans. Lee, J. E. (1977). *History of Joseon Taoism*. Seoul: Boseongmunhwasa.
- Chung, C. H. (2002). Teaching Religion: Its Problems and Possibilities in Korea. *Journal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41, 269-338.
- Kang, D. K. (1987). A Prolegomenon to the Study of New Religious Movements in Korea.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6, 181-223.
- Kim, H. C. (1977). A Study of the Outlook on Diseases in the Religious Thoughts of Modern Korea. *Wonkwang University Theses*, 11, 2-22.
- Kim, N. P. (1992). Ethical Thoughts of Civil Taoism in the Lat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Studies of Taoism and Culture*, 6, 355-372.
- Kim, T. (1994). Meeting of Taoism and Jeungsanism in Korean Religious History. *Journal of The Studies of Taoism and Culture*, 8, 283-373.
- Kim, Y. J. (2013). An Alternative Education for Daesoon-Jinrihoi. *Korean Journal of Religious*

- Education*, 41, 21-44.
- Ko, B. C. (2020). Religions and Preventive Measures in the Spread of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81(1), 9-32.
- Na, K. S. & Kim, Y. J.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ligious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4, 41-57.
- Na, K. S. & Youn, J. K. (2015). Method to invigorate personality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9, 75-101.
- Na, K. S. & Youn, J. K. (2017). Brain Science and the Understanding of Religious Education in Daesoonjinrihoi.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5, 27-45.
- Na, K. S. & Youn, J. K. (2019). Task and Vision of Religious Education as a College Liberal Study with Regard to the Increase of Religious Illiteracy Rat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0, 119-142.
- Na, K. S. (2011). A Study on the Thoughts of the Great Opening of Korean New Religion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24, 243-275.
- Na, K. S. (2013). A Study on the Theories of Ideal Society in Daesoonjinrihoe.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1, 409-452.
- Park, S. Y. (1997).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 7-21.
- Ryu, S. M. (2013). The Significance and Reality of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20, 1-34.
- Yeum, S. J. (2017). Study on the Concept and Meaning of Religious Publicness.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72, 7-36.
- Youn, J. K. (2001). *A Study on the Theory of Human Formation in Daesoon Though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 Youn, J. K. (2009). The Interpretation of Desire in Daesoon Thought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1, 61-74.
- Youn, J. K. (2014). Literary Elements of the Scripture of New Religion in Korea: Focusing on Jeung-San. *Literature and Religion*, 19(3), 109-131.
-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Retrieved 2021.1.20. from <http://www.daesoon.org/business/>
- Youhap News (2020.11.5.).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ublic Concern No.1 economic inequality, No.2 religious conflict. Retrieved 2021.1.21.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4188600017>